

# 48년 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54층 금융특화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200m이하 1000세대 규모 재건축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운영하고  
신설역 예정지에 공공공지도 설치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업, 오피스, 주거가 결합된 금융 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일자리를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여의도 도심 기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는 정비구역 심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3만6363㎡, 588세대)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해왔지만, 지난 2018년 ‘여의도 통개발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중 국제금융로변 조성 계획. /서울시

(마스터플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이 보류됐다”며 “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

뤄,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현재 최고 12층,

588세대인 한양아파트는 최고 200m 이하(층고에 따라 50~54층), 1000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시는 업무-주거지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상향해(제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복합용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여의도 일대가 ‘금융 특장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는 만큼 공공기여 시설로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서울핀테크랩 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금융권 종사자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지원에 나선다.

아파트 담장으로 막혀있던 ‘국제금융로’와 ‘여의대방로’는 상업·업무가로로 재조성된다. 시는 저층부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시는 신설역(한양아파트역)이 예정된 곳에 공공공지를 설치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높이 제한을 최고 54층으로 제시한 것은 여의도 전체 스카이라인과 조화를 이루면서 북쪽 대교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에 미칠 일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여의도 일대 재건축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고교학점제 예고에 ‘서열화’ 우려 목소리

교육계 “자사고·특목고 등도 존치  
대입경쟁 이어 고입경쟁 이어질수도  
귀족학교 통칭되는 학교 정리돼야”

고교 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 등의 존치가 함께 이뤄지면서 ‘고교 서열화’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귀족학교’의 부활을 우려하며 교육 당국이 면책성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자사고·특목고 등의 존치로 인해 고교 서열화 심화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A~E등급의 절대평가가 제안되고 있으며, 일부 공통과목에는 성취등급제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행 대입 제도와 어울려졌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의 위험도가 높아 대입 경쟁에 이어 고입 경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귀족학교로 통칭되는 학교들이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지역마다 우수학교, 기숙학교 등을 추진한다면 특목고를 강화하는 식의 방식은 거꾸로 돌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을지 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 등은 흔히 소수의 상류층 자녀를 위한 ‘귀족학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현 교육 정책은 과거 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와 닮아 교육 정책 회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이 장관은 ‘고교 다양화’ 정책을 통해 자사고 등을 도입시키면서 고교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만큼 고교 단계에서의 경쟁 완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오히려 ‘고교 학벌’을 강화해 경쟁 교육의 가열이 예측되고 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입 경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라는 바운더

리 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는 확실화시킨다는 협의가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빠르게 도입해 현 교육부 설계보다 학생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는 방식을 통한 평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제도가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고등학교를 시험 없이 들어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 듣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17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국단위 모집 일부 자사고 등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외고·국제고 재편을 주목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는 “자사고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의 미봉책”이라며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고교 학점제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교의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책성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서울 한성대에서 열린 디지털 새싹 비전 선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경대학교

## 학생 3.3만명 ‘디지털 새싹캠프’ 참여 희망

교육부, 초·중·고 학생 대상  
대학 등서 1600여개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새싹 캠프’에 초·중·고 학생 3만3000여명(17일 기준)이 참여를 희망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전국 총 90개의 대학·기업·공공기관에서 16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캠프 운영기관에서는 소

프트웨어 기초 원리 교육, 생활 속 인공지능 체험 실습, 프로젝트 기반 코딩 협력 학습 등 정규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자신의 학년, 개인의 수준·흥미, 원하는 일정·장소 등을 고려해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동양대학교의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경기 신흥중·3학년)은 “간단한 코딩을 통해 로봇이 길을 따라 주행하는 실습 활동이 가장 흥미로웠고, 캠프를 계기로 프로그래밍 분야에 대해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 코로나 과잉 염증반응 완화 천연물질 발굴

호서대 식품공학과 연구팀

호서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자의 과잉 염증반응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천연 생리활성물질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중 과잉 염증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 심한 경우 젊은이도 사망할 수 있다. 특별히, 알레르기 염증반응의 일차적 핵심 세포인 비만세포(mast cell)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중양괴사인자 알파(TNF-α), 인터루킨-6(IL-6) 및 흉선간질립포포이에틴(TSLP)은 사이토

카인 폭풍의 주요 원인물질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한약재 백수오의 생리활성물질인 카우다틴(caudatin)이 활성화된 비만세포의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6, TSLP의 수준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규명했다.

이런 연구결과 ‘Caudatin attenuates inflammatory reaction by suppressing JNK/AP-1/NF-κB/caspase-1 pathways in activated HMC-1 cells’는 식품 분야 권위 SCIE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23년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신하은 기자

## 서울시, 해체 공사장 관리·감독 강화

‘해체계획서’ 작성, 현장중심 전환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해체공사 현장 여건과 안전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전문가가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심의위원회 실제 현장을 보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해체공사 착공을 신고할 때는 직접 시공계획서와 함께 하도급을 진행할 공사량·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가 시작되면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살피도록 점검을 강화한

다. 해체계획 미준수, 감리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의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 공사현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